

Diversitas

Diversitas

Libertas

Justitia

Veritas

et

Diversitas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Korea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07

영화의 다양성, 영화의 다양한 시선들

이대현 영화평론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35

어다어장의 장자 莊子 제물론 齊物論 읽기

김지형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이 대 현

영화평론가,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영화는 이야기다.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다. 그렇다면 영화는 세상을 이해하는 ‘창(窓)’인 셈이다. 영화는 자유로운 이야기의 재구성을 통해 과거를 불러내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상상한다. 모든 인간의 역사, 삶, 꿈이 그렇듯 그것을 이야기로 담은 영화 역시 다양성은 필연이다. 스스로 다양한 모습과 색깔을 가지고 인간과 세상과 시간을 비추고, 말을 걸고, 손을 내민다.

영화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속에서 만들어진다. 영화의 다양성 역시 삶의 변화와 충돌,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때문에 영화의 다양성은 ‘누가, 무엇을 만드느냐’에서 출발한다. 만들어진 영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되느냐’ 에도 다양성의 변수는 들어있다. 다른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지만 영화도 보는 사람의 시각과 가치관과 감정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영화의 다양성은 이 모든 것들을 변수로 이야기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영화, 무엇인가?

영화는 ○○다.

‘영화가 무엇인가’는 영화에 따라, 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영화는 가짜다. 영화는 활동사진으로 출발했지만 허구와 상상의 세계로 발전했다. 사실의 재현이나 기록도 있지만 그것들 역시 서사라는 양식, 선택(편집)과 과장(특수효과), 조작(연출)의 과정을 거치면서 허구와 뒤섞인다. 영화가 허구와 상상의 세계로 나아간 가장 큰 이유는 대중적 오락성 때문이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욕망을 영화는 실체가 아닌 영상언어의 환상(판타지)으로 대리만족과 카타르시스를 대중에게 제공한다. 미경험의 세계에 대한 가상의 체험. 이 신기루 같은 자극이야말로 영화의 강력한 무기이다.

- 영화는 현실이자 미래다. 영화의 상상과 허구는 늘 현실을 발판으로 만들어지고, 현실로 내려온다. 귀신의 세계, 먼 미래의 세계조차 영화가 인간세상의 상식과 가치 안에서 상상된다. 영화가 현실을 보는 ‘창’인 이유이다. <아바타>와 <인셉션>에서 보듯 상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는 현실이 된다.

- 영화는 재미다. 재미가 생명력이다. 그 재미는 단순히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이 아니다. 영화가 그것에만 집착, 반복했다면 산업과 예술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영화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동의 희로애락, 발견의 즐거움, 깨달음, 보편적 가치의 확인, 경험의 대리, 추억의 현재화, 상상의 형상화 등의 다양한 재미를 추구하면서 그에 맞는 그릇(장르)들을 만들어낸다.

- 영화는 소통(커뮤니케이션)이다. 영화의 대중성은 과거 소수의 특권이던 문화예술을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하고, 확장하는 것만으로 달성된 것이 아니다. 가장 보편적인 가치의 전달과 극장이란 공간, 시공간을 초월한 동시성과 반복성, 다양한 표현요소의 구사로 ‘소통’을 극대화한다. 때문에 극장은 단순히 영화를 더 웅장하고 실감나게 보는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는다. 일종의 ‘광장’이다. 영화는 그곳에서 서사와 영상, 카메라의 시선과 스타(배

위로 관객들을 은밀히 유혹하면서 메시지의 설득력과 공감을 높인다. 영화 상영의 시작 전 극장의 조명이 꺼지는 순간을 하나의 ‘의식(儀式)’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같은 영화를 한 장소에서 함께 본다는 것은 영화와 끝 없이 대화하는 동시에 무언의 소통과 공유의식을 갖게 한다. 그것으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권력이 되기도 한다.

- 그래서 영화는 정치다. 정치와 닮았고, 정치적 속성을 함유하고 있다. 영화는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 재현 체계 중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현실을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하게 하는 심리적인 성향이나 사회제도들을 유지시켜 주면서 이 세계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서 하는가에 대한 상식적인 감각을 만들어낸다.¹⁾ 이때 재현은 단순히 현실의 재연이 아닌 영화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며, 그것에 의해 영화는 정치적이 된다고²⁾ 할 수 있다. 갱 영화, 조폭 영화에서 보듯 영화 속의 갈등은 권력투쟁, 정치적 목표와 동일하다.

1) Ryan, M. & Kellner, D. (1988). <카메라 정치학: 현대 할리우드 영화의 정치학과 이데올로기>(백문임·조만영 역). 서울: 시각과 언어.

2) 박종성 (1999). <정치와 영화>. 고양: 인간사랑.

이처럼 영화는 진실은 허구로, 허구는 사실처럼 만들어 일정한 메시지나 정치적 이미지를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통해 재현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영화와 '성조기'와 '자유'로 상징되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 한국에서 빈번

한국영화의 정치성



<택시운전사>



<1987>



<연평해전>

상상과 허구이지만 현실에 대한 거울로서 영화는 '정치성'을 함유할 수밖에 없다. 영화는 그 정치성의 예술적 표현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고,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꿈꾸게 만든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영화는 예술적 완성도나 리얼리티를 위한 요소로서 '정치성'이 아닌 '정치적 의도'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경향이 강하다. 영화 스스로 문화 권력을 확장하고 우리 사회의 진영 논리와 이념적 대립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시대 분위기와 권력 교체에 영향하는 작품들이 많다.

보수정권에서 이순신과 맥아더(명량, 인천상륙작전)가 부활하는가 하면,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맞춰 노무현 전 대통령(노무현입니다)이 스크린을 통해 살아 돌아온

히 등장하는 정치영화가 그렇듯이 그것을 통해 정치적 가치를 합리화, 정당화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정치적 해석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품으로는 <군함도> <인천상륙작전> <명량> <변호인> <내부자들> <암살> <군도:민란의 시대> <국제시장> <택시운전사> <연평해전> <1987> <아들의 이름으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영화들은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재인식하고 재평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대적 분위기와 관객들의 심리와 정서에 영합해 정치성향이 강한 소재, 색깔을 담음으로써 상업적 성공과 함께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까지 얻으려는 계산도 깔려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노골적인 정치색을 가진 영화가 가진 문제점은 관객들로 하여금 오락과 문화적 경험으로서 영화에 대한 감동이나 공감보다는 영화까지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동의의 수단으로 여기게 만든다.

물론 이같은 현상을 초래한 1차적 책임은 기득권 경쟁을 위해 노골적인 편 가르기와 정치색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상업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영화생산자(기획자, 제작자, 감독)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그들과 동조하고 협력해 영화를 정치적 선전수단과 헤게모니 확장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권력집단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대현 (2019). 한국신문 영화보도 담론의 정파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서울. 160.>

영화는 ‘뻔하다’?

하늘 아래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 사람 사는 것은 언제나, 사는 곳은 어디나 같다는 말도 된다. 시대와 장소를 떠나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된다. 때문에 영화가 아무리 오락이고, 재미이고, 상상의 산물이라고 해도 현실에서 점프해 마음껏 재주를 부리다가도 다시 인간과 세상으로 내려와야 한다. 이런 서사와 형식의 반복 속에서 영화는 상상력과 통찰력을 제공하고, 영상언어 예술로서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사실 모든 영화는 뻔하다. 다만 ‘뻔하다’가 상투적이라는 의미일 때는 부정적이지만, 원형적이라는 의미일 때는 긍정적이다. ‘상투적’은 이야기가 협소하고, 특수한 문화적 경험으로 제한하면서 낡고 물개성적인 것을 일반성으로 포장하는 표현을 말한다. 당연히 내용과 형식이 빈곤하다. 아류작, 모방작들이 그렇다.

반면 ‘원형적’은 현실의 구체성으로부터 보편적 인간 경험을 들어 올린 후, 그 내부에 개성적이고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한다. 인문학 지식과 감성을 자극하며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발견하게 만든다.

<왕자와 거지> <카케무샤>의 인물과 서사구도를 베낀 듯한 <광해, 왕이 된 남자>가 1,20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대성공을 거둔 이유를 한번 생각

해 보자.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광해군 15일간의 행적을 독특한 문화로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펴면서도 현실적 구체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백성과 소통하고 아픔을 나눌 줄 아는 눈과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확인시켜 주었다. 바람직한,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 상을 그린 영화는 그전에도 많았다.



영화 다양성

영화 다양성, 왜 필요한가

영화는 표현의 문화예술이다. 표현의 생명은 자유와 개성이고, 예술은 자유롭게 개성적인 표현으로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 영화는 동시에 산업이기 때문에 유통과 소비에 의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복합적이다.

영화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치와 현실 인식, 상상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삶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해준다. 영화 다양성은 곧 삶의 다양성이고 문화의 다양성이다. 문화 다양성은 ‘좋다’와 ‘싫다’, ‘높다’와 ‘낮다’의 구분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다’와 ‘다르다’이다. 그 경계를 단단히 하는 것도, 허무는 것도 문화적 취향이다. 다양한 영화만큼이나 다양한 소비자, 영화를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비 다양성도 필요하다.

문화를 즐기는 능력인 문화적 취향의 확대는 지식과 교양, 생각과 가치관

을 넓고 깊게 만들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와 시선을 가지게 한다. 액션물만 즐겨보는 사람은 다른 장르의 영화가 가진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결코 누릴 수 없다. 스스로 취향의 벽을 깨뜨릴 때 다양한 색깔의 영화가 보이고, 영화는 내 것이 된다.

정파성에 빠져 영화까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을 하는 것도 취향의 확대를 가로막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편견이나 편향을 허물고 가슴과 눈을 열어야, 만날 수 있는 영화도, 느낄 수 있는 영화도 다양해진다.

영화 다양성, 돈과 기술?

영화는 고비용의 예술이다. 비용에 따른 수익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영화는 연속성을 갖지 못한다. 작가주의 감독이 흥행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의 예술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더라도 그것이 반복 확대 되려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야 한다.

영화생산의 다양성, 또 하나의 조건은 다양한 자본에 있다. 지나치게 흥행만을 좇는 자본은 모험을 꺼린다. 다행스러운 것은 영화자본이 갈수록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투자펀드로 분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변화는 비슷한 것의 반복에서 오는 수익 다변화의 감소를 경험한 영화투자

자와 생산자들의 의식이 바뀐 탓도 있지만 제작환경과 기술혁신, 유통의 혁신, 다양성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려는 소비자(관객)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영화가 흥행예술이란 점에서, 고비용 산업이란 점에서 생산의 다양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익을 염두에 둔 지나친 상업영화 제작 편중은 문화 편식을 심화시킨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공공자본이 투자되기도 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선전, 선동을 위한 영화산업 간여와 지원과는 달리 정부나 지자체가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 예술영화 등에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는 것도 영화 다양성에 도움이 된다.

18

그러나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영화제작의 엄청난 변화와 다양성에 기폭제가 된 것은 디지털 기술혁명이다. 영화는 테크놀로지의 산물이기 때문에 끝없이 새로운 기술과의 결합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소재와 이야기의 표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값비싼 필름 대신 디지털 영사기는 제작비용도 낮추었다. 이제는 스마트 폰이 영사기를 대신해도 손색이 없다.

소위 블록버스터는 여전히 메이저영화사들의 몫이지만, 흥행 부담이 적은 저예산 예술영화들이 수많은 프로덕션에서 제작되고 있다. 그 자본도 과거에는 영화산업에서 주로 나왔지만 지금은 경계를 허물고 시장과 사업의 다각화를 노린 다른 산업자본이 들어오면서 영화 생산의 양적 규모나 다양화를 더

욱 촉진시키고 있다.

또 하나. 글로벌화와 차별화이다. 할리우드 영화는 미국의 투자사와 영화사, 한국영화는 한국의 투자사와 제작사가 만들고 특정지역에 배급, 상영한다는 상식이 깨졌다. 반대로 모든 영화가 모든 지역, 나라에서 소비되어야 한다는 강박도 사라졌다. 디지털 혁명에 의한 영화제작의 다양화는 유통(배급과 상영)의 다양화와 맞물려 있다. 제작이 유통을, 유통이 제작을 변화시키고, 영화 형식까지 새롭게 만들어 ‘영화는 극장에서 보는 것’이란 관념을 허물어 버렸다. 영화 플랫폼인 OTT(Over-the-top media service,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등장은 영화 소비를 집단에서 개인으로, 일방적에서 선택적으로, 작은 영화들까지 단발성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반복성으로 바꾸어 버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전한 영화 소비의 창구가 되었다.

이전에도 영화상영의 다양성에 대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작은 극장들이 예술영화와 제3세계 영화에 목마른 관객들을 위해 유럽 영화들을 가져와 상영해 작은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마케팅과 배급 등에서 기존 상업영화와의 차별화를 하지 않은 데다, 젊은 관객층으로 인해 오래 지속성을 갖지 못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1996년 부산을 시작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국제영화제

이다.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많은 영화제들이 지자체의 과시와 홍보수단, 지나친 소비성 축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적어도 영화 상영의 다양성에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 역할을 해온 측면은 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제작한 수백 편의 영화가 영화제에서 한꺼번에 상영되고, 수십만 영화팬들이 몰려들지만,⁴⁾ 영화제가 영화상영의 다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느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영화제 기간에만 상영되는 ‘일회성’에 그치고 있으며, 영화제 이후 일부 인기 작품이 극장에서 개봉하지만 대부분 찾는 관객이 없다는 점이 그렇다.

OTT의 힘?

급성장하고 있는 OTT는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영화 유통과 상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경제성, 편리성, 반복성, 개별성, 탈지역성으로 어떤 영화도 원하는 때에 누구나, 값싸게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3) 이대현 (2010). <열일곱, 영화로 세상을 보다>. 서울: 다함미디어, 269.

4) 부산국제영화제측의 통계에 의하면 제1회(1996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있기 전인 제24회(2020년)까지 매년 16만 5,000여명에서 22만 7,000여명의 관객이 영화를 관람했다.

제 관객은 개봉작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지 않아도 되고, 파일로 작품을 소장할 필요도 없고, 제작사는 배급사와 극장의 눈치를 보며 영화를 만들 필요도 없어졌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넷플릭스로 개봉하자 극장들이 보였던 반발과 OTT가 제작, 상영하는 영화에 대한 칸영화제의 거부감도 지나간 해프닝이 되었다.

계간 『대산문화』 여름호(제80호)의 ‘대산초대석’에서 <국제시장>의 윤제균 감독은 “OTT가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연적인 흐름이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든 OTT에 의한 유통방식이 시장과 소비의 변화를 넘어 제작과 장르, 포맷에까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단순히 극장용 2시간짜리가 아니라 숏(short)폼의 영화들, 즉 짧게는 30분짜리 20개, 1시간짜리 10개의 영화도 가능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얻은 것이 작품의 완성도,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빈부격차의 문제란 글로벌 주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OTT의 역할도 부정할 수 없다. 넷플릭스가 들어오고,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한국영화 역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쉬워졌고, 언어의 장벽도 낮아졌으며, 한국배우에 대한 관심과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 윤여정이 <미나리>로 한국배우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온라인 영화상영과 관람이 확대되면 당연히 극장의 역할과 거대 자본의 극장용 영화의 다양성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17년 만에 <태극기 휘날리며>를 극장에서 재상영하는 자리에서 강제규 감독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영화는 유통도 중요하지만 콘텐츠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 극장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다. 봉준호 감독 역시 과거 <아바타>가 나왔을 때 앞으로 모든 영화가 3D로 갈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서 모든 영화가 OTT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극장과 OTT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플러스 게임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윤 감독은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상황을 떠나 OTT가 영화감상에 필요한 개인의 사적 사유 공간으로 자리 잡아 영화의 소비와 다양성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OTT가 영화의 소비패턴 이분화와 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세계 모든 작은 영화들이 OTT로 들어오고 있다.

극장과 VOD에서 사라진 영화를 볼 수 없는 시대는 지나갔다. 특정 장르, 소재, 나라의 영화를 찾기 위해 힘들게 이 사이트, 저 사이트를 검색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고, 자주 보는 장르, 주제, 소재, 국가, 감독, 배우의 영화를 밥상처럼 차려준다. 집어 먹기만 하면 된다.

모든 영화가 홍보와 지명도를 위해 극장에 며칠이라도 상영하고 온라인

으로 넘어가야 할 이유도 없다. 가상공간의 극장(OTT)에 이미 수억 명의 관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2억 4,000만 명이고, 시작한 지 불과 1년 4개월, 그것도 겨우 59개 국가에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디즈니플러스의 스트리밍 동영상 가입자가 1억 명(2021년 3월 현재)이다.

선택만 남았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만 볼 것인가, 아니면 알고리즘에 의존하지 않고 시선을 넓혀 다양한 다른 영화들도 볼 것인가. 그리고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영화에서 ‘무엇’을 만날 것인가.

인구유형별 관객의 일반적 특성

(영화진흥위원회 분류)

① 이성 중시형	- 지적욕구 충족, 삶의 질 향상 - 40대에서 50대 - 관람 횟수 중간(한 달 평균 3~5회) - 장르: 휴먼드라마, 액션, 추리, 스릴러, 역사극
② 감성 중시형	- 영화 자체를 즐기면서 스트레스 해소 - 20대 후반, 30대 - 관람빈도가 가장 높음(한 달 5~10회) - 멜로, SF, 공포, 애니메이션
③ 사회성 중시형	- 소일거리 혹은 사교 목적 - 10대, 20대 초반 - 액션, 공포, 코미디

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모든 문화예술 창작품이 그렇듯, 영화도 그것을 소비하는 관객에 따라 의미와 가치는 제각각이다. 같은 영화에서 다른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다른 영화에서 같은 것을 확인하기도 한다. ‘재미있다’와 ‘없다’도 마찬가지다. 영화란 각자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며, 그 시선에 의해 영화는 ‘나만의 것’이 된다. 물론 영화는 형식적 관습, 이를테면 내러티브의 종결, 이미지의 연속성, 비성찰적인 카메라, 등장인물의 고정된 정체성, 중심화면 잡기, 프레임의 균형, 사실적인 명료함 등으로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갈 이유는 없다.

작가들이 소설 후기에 자주 쓰는 말이 있다. “이제 이 작품은 독자 여러분의 것입니다.” 영화 감독 역시 그 말을 자주한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는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해도 좋다”고 했고, 정이삭 감독은 “내 영화는 언제나 열려 있는 ‘식탁’이므로 누구든 언제라도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고 했다. 내가 어떻게, 어떤 시선으로 영화를 보느냐에 좋은 영화, 재미있는 영

화, 의미 있는 영화, 새로운 영화가 된다는 것이다. 영화의 의도, 가치, 이미지, 상상력에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나의 경험과 시각으로 영화 속의 다양한 코드들을 찾을 때 같은 영화라도 다양하게 읽을 수 있고, 다른 색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영화에서 3개의 시선

영화에는 3개의 눈이 있다. 하나는 카메라이고, 또 하나는 배우이며, 마지막 하나는 관객인 ‘나’이다. 영화는 세계와 유사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영화의 시각도 항상 의도적이다. 볼 것을 선택하고, 본 것에 의미를 결정하는 일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그렇다. 관객 역시 영화적 시각을 자신의 시각처럼 착각하면서 영화의 이미지들을 신뢰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영화의 시각인 카메라는 감독의 눈이다. 감독은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카메라를 일치시키고, 가까이 가져가고, 다양한 워크(롱테이크, 핸드헬스, 점프컷 등)로 대상에 이미지와 정서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감독은 특정 입장이나 시점을 강요하고, 영화적인 인위성의 기호들을 감추면서 관객을 감독과 같은 입장에 가두어 놓으려 한다.

전쟁영화를 한번 보자. 대부분의 전쟁영화에서 카메라는 감독이 자기편으로 설정한 쪽의 눈이 되고, 그들이 가진 무기의 눈이 되어 상대방을 응시하고 공격한다. 카메라 시선을 따라가면 영화에서 적은 관객의 적이 되고, 관객은 자신도 모르게 감독과 하나가 된다. 카메라가 무시하고 흘려버리는 것을

그에게는 내가 적이다

영화 <아버지의 깃발> vs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배우출신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2007년에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만 정반대로 돌려 찍은 두 편의 전쟁영화이다. 1945년 2월, 우리에게는 유타도로 익숙한 남태평양의 작은 섬, 이오지마에서 일본군과 미군이 벌인 최초의 전투상황을 그렸다.

35일 동안 계속된 사투에서 미군은 7만 명 중 6,800여명 전사하고 2만여명 부상을 당했고, 일본군은 2만2,000명 가운데 불과 1,000여명만 살아남고 모두 전사했다.

<아버지의 깃발>에서 카메라는 고집스럽게 미군 진지에서 미군의 눈이 되고,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에서는 끝까지 일본군 진지에서 일본군의 눈이 된다. 이렇게 시선만 돌리면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 선과 악은 뒤바뀐다. 이를 통해 감독은 적과 아군 모두 똑같은 인간으로 삶과 죽음, 가족에 대한 사랑, 공포와 비극의 무게는 같다는 사실, 전쟁은 피아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같이 흘러버린다. 영화 <덩케르크>에서는 아예 무기가 카메라의 눈을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적을 공격한다. 카메라의 눈만 무작정 쫓아가다가는 영화의 다양한 기호나 요소들이 가진 의미나 감동을 놓쳐버린다. 영화적 시각을 투명한 것으로 생각해 그것을 통해 보려는 경향 때문이다.

배우의 시선은 어떨까. 절대 관객을 향하지 않는다. 카메라(감독)와도 좀처럼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 카메라나 스크린을 보고 있는 관객을 향할 때는 그 시선이 영화 속의 한 공간이나 다른 배우라는 것을 바로 다음 컷에서 재빨리 보여준다. 배우가 카메라의 눈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관객에게 시선을 두는 순간, 관객의 공간을 인지하게 되고 관객 역시 자신의 위치를 알아채 허구성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배우의 이같은 시선두기는 영화의 환영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환영주의는 영화가 사건과 인물은 물론 그것을 보는 방식이 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관객이 주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눈에 보이는 이미지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마음에 가장 호소력 있는 조건(허구)을 창출해 자신의 현존을 잊은 채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지각적인 만족감을 준다.⁵⁾

5) Sobchack, T. & Sobchack, V. (1986). <영화란 무엇인가>(주창규 역). 서울: 거름.

마지막으로 영화에는 ‘나’의 시선이 있다. 일반적으로 ‘나’의 시선은 다른 사람(감독)의 시각과 결합된 기계(카메라)의 시선을 따라가려 한다. 그 수동적 참여가 나로 하여금 영화에 빠져들기 쉽게 하고, 나를 편하고 즐겁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화는 내 것이 될 수 없다. 감독의 것으로 남는다.

‘나’의 시선으로 영화 보기

영화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나만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 취향에 집착하고, 정서적 스키마(schema)로 익숙한 것만 받아들이고 보려 하면 나의 시선은 점점 좁아지고 단조로워진다. 시선을 다양하게 가지려면 ‘마음의 창’부터 활짝 열어야 한다. 섬세한 감성과 날카로운 눈으로 낯설고 어색한 것에서 보편성과 동질성을 발견할 때 영화는 또 다른 옷을 입는다. 누군가에게는 카타르시스가 나에게는 깨달음이 된다.

2010년, 국내 처음으로 순수 베트남 기술과 감독, 배우로 만든 상업영화 <하얀 아오자이>가 우여곡절 끝에 개봉했다. 그러나 완성도와 기술 수준이 떨어진다면, 베트남 영화까지 봐야 하느냐며 관객들은 외면했다. 베트남에서는 당시 최다인 50만 명이 보고 눈물을 흘렸고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수상(관객상)까지 했지만, 상영 일주일도 안 돼 극장에서 사라졌고, 겨우

6,000여 명이 보는 데 그쳤다.

1950년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가족의 비극과 희망, 어머니의 헌신적인 자식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린 이 영화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들과 우리의 역사와 삶에 동질성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이 영화에서 봐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세상’이었다. 다문화, 문화다양성이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즐기면서 우리 문화와의 공유점을 찾아내고, 우리와 다른 정서와 정신의 장점들을 그들로 하여금 살리게 하는 것”⁶⁾이기 때문이다.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나의 시선을 다양하게 가지면 세상에 나쁜 영화는 없다. 아무리 상투적인 영화도 그 속에 아름답거나, 선하거나, 새롭거나, 따뜻한 풍경 하나쯤은 있다. 그것을 발견해 나의 지식과 감정으로 확장한다면 나에게 좋은 영화가 된다. 적의 눈으로도 세상을 보면 <글래디에이터>에서 전쟁영웅 막시무스를 죽이려는 코모두스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으며, 사유와 탐구로 영화는 ‘편한’ 복수극이 아닌 역사가 된다.

‘하나의 영화에는 하나의 이야기만 있고, 영화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 그 이

6) 이대현 (2010). <우리에게 시네마천국은 없다>. 서울: 다할미디어.

야기에 도달해야 한다’면 그 하나의 영화는 누구에게나 같은 영화이다. 그러나 그 영화를 통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같을지라도 그 길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영화 다양성은 그 길에 있다. 이란의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은 일찍이 영화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에서 주인공인 방송PD와 시골 소년의 대화로 그것을 확인시켜 준다.

“학교는 어디로 가니?”

“이쪽이랑 저쪽이요.”

“학교가 두 군데냐?”

“아뇨, 학교 가는 길이 둘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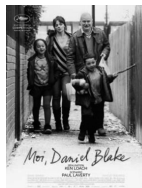
어떤 곳을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길이 둘이면 목적지도 둘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일에는 한 개의 정답만 있지 않으며, 인생에도 영화에도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 그래서 삶도, 영화도,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의 마음도 다양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내가 보고 싶은 눈으로 보자. 그것이 좀 더 고달프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라도, 그 속에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모든 영화에 나만의 시선을 고집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획일’이고, ‘강박’이다. 소위 ‘대박’ 영화일수록 그렇다. 관객은 바보가 아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공감하는 데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이 단순한 오락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숨어있다. 그것을 현실과 연결시킬 때, 영화는 세상으로 걸어 나오고, 나와 눈을 맞춘다.

이런 시선, 이런 영화

시간은 어디서도 같은가	인터스텔라, 너의 이름은, 초속 5 cm, 어바웃타임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같다	미나리, 어디 갔어 버나뎃, 디센던트
역사는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	택시운전사, 1987, 국제시장, 포레스트 검프
귀신, 사이버 세상이라고 다를까	소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썸머워즈
어쩌면 나의 의식이 나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콘트롤러, 인셉션
시선의 자유, 이중적 태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인간의 생각하는 자유, 행복이 맞는 것인가	마다가스카, 와일드, 마루 밑 아리에티
기적은 누가 만드는가	머니볼, 파티마의 기적, 어거스트 러쉬, 잠수종과 나비
전쟁에도 페어플레이가 필요한가	트로이, 덩케르크, 메리 크리스마스
외계인, 인류의 적일까 친구일까	우주전쟁, 화성침공, 인베이터, ET
선과 악의 경계는 어디일까	다크나이트, 조커, 반지의 제왕
착한 사람만 늘 복을 받는가	올리버 트위스트, 찰리의 초콜릿 공장
넘을 수 없는 세상의 선을 본다	기생충, 나 다니엘 브레이크, 고양이를 부탁해
아버지의 조건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국제시장, 리얼 스틸, 우아한 세계, 아이 엠 샘





영화로 만나는, 상상하는 다양한 세상

영화는 서로 다른 시선으로 상상과 세상을, 우리는 서로 다른 눈과 가슴으로 영화를 만난다. 거기에서 다양한 민족과 역사, 삶과 사회, 문화와 정신, 믿음과 선의 같음과 다름을 발견한다. 그 느낌들이 ‘나’와 ‘너’와 ‘우리’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무수히 많은 영화들, 다양한 소재와 이야기들이 제각각의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 곳은 ‘하나’이다. 보다 나은 인간세상을 향한 꿈. 그것을 위해 영화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들과 경험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선, 사랑, 우정, 가족, 공동체, 나눔, 죽음, 영혼, 꿈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삶을 이야기하고 시공간을 넘어 문화와 역사와 종교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는 나만의 가치가 아닌 타인, 인간을 넘어 동물과 자연과 미지의 생명체의 생각과 마음까지 함께 공감하기를 원한다.

영화는 때론 <도가니> <와즈다> <암흑가의 두 사람>처럼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바꾸지는 못해도 날카롭고 거침없는 눈으로 세상의 모순과 비인간

성을 풍자하고 비판한다.⁷⁾ 역사를 다시 불러내 현실을 돌아보게 하고 미래의 길을 다양하게 그려보기도 한다.⁸⁾

인간의 모습을 벗어난 변종(스파이더 맨, 다크맨, 배트맨)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고, 아내나 여성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더 와이프, 82년생 김지영)를 되찾으려 한다. 인공지능과 유전자 복제시대에 나와 똑같은 또 하나의 ‘나’(아바타, 아일랜드, 서복)의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게 만들고, 로봇과 동물과 외계인의 반란과 욕망(AI, 바이센테니얼 맨, 터미네이터, 킹콩, 혹성탈출, 인베이전)으로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우월성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질문을 한다.

34

때론 누구도 알 수 없는 죽음의 세계를 상상하거나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선택(버킷리스트, 화장, 중천, 원더풀 라이프, 굿바이, 신과 함께)으로 삶의 가치와 겸손함을 가르치는가 하면, 가장 원시적인 인간의 욕망을 무협과 마법(소림축

7) 영화 옥자(유전자조작, 기업이익), 내부자들(부패권력), 화차(신용카드), 부러진 화살(법과 검찰), 괴물(환경오염, 약자에 대한 무관심), 바벨(소통의 부재), 허트 로커(전쟁과 거짓말), 슈렉(외모지상주의), 히든 피겨스, 안티고네, 그린카드(인종차별과 인권), 82년생 김지영(가부장제와 성차별) 등

8) 한국영화로는 자산어보, 천문, 남한산성, 군함도, 명량, 왕의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 암살, 귀향, 밀정, 유관순, 고지전, 1987 등

구, 와호장룡, 해리 포터, 마녀배달부 키키)으로 마음껏 펼쳐 보이기도 한다.

지도자가 우리를 실망시킬 때면 역사에서 진정으로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상(웰컴 투 동막골, 광해_왕이 된 남자, 역린, 명량)을 찾아보고, 언어와 종교와 인종과 지역과 세대와 정파로 막혀있는 세상에 소통의 조건(바벨, 킹스 스피치)을 제시하기도 한다. 고령화 사회에 늙고 병들고 소외된 노인들의 우울한 삶의 모습에 눈을 돌려 치유 방법(더 파더, 언노운 걸, 인턴, 그대를 사랑합니다)까지 고민하는 영화.

어디 이뿐이라. 영화로 만날 수 있는 세상은 영화의 숫자만큼이나 많고, 그 영화들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길만큼이나 여러 갈래이다. 그 다양성이 곧 세상과 인간의 다양성이기도 하니까. ❀

김 지 형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어쩌다 다양성, 어쩌다 장자, 어다어장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사람을 알아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일, 하는 일에 어느새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신체, 사회, 경제, 문화, 종교적 소수자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성에 관심을 가진 벗을 둔 덕에 어쩌다 보니 다양성이라는 단어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어쩌다 다양성, 어다인 셈이다.

장자를 같이 읽어보지 않았냐는 이야기가 들어왔다. 뜻밖의 일이었으나, 오래전부터 가까이 지내온 벗이 그 안에 있다 해서 쉬이 그러자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 아마추어였다. 하지만, 뭐 같이 읽으며 사는 이야기를 나누자는 게지, 공부하자는 건 아니니, 아쉽기는 했지만 크게 흠 될 일은 아니었다. 어쩌다 장자, 어장이다.

그런데 장자를 더듬더듬 읽어가다 만난 제물론에서 뜬금없이 다양성이라

는 단어가 자꾸 떠올랐다. 이상한 일이었다. 역사 속의 장자가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젠더, 인종, 성 정체성, 사회 경제적 지위, 종교 따위에 따른 차별 넘어서기, 그리고 다양성을 새로움이 짝트는 창의성의 근거지로 생각해봤을 리도 없으니, 혼자 웃을 일이었다. 또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도 하지만, 다양성에 관해서 관심을 키우고는 있었으나, 뭐 크게 대단한 욕망을 품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아는 건 더구나 없는데도 말이다. 아마도, 어쩌다 다양성과 장자를 만난 어다어장인 나에게서는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 읊는다는 말이 더 맞는 듯싶다.

어쨌거나, 사람 장주(莊周), 책 장자, 그리고 제물론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표에 나타내고, 어다어장의 길에서 주위들은 이야기와 제물론을 스치듯 읽고 지나면서 일어나는 거친 생각을 두서없이 적어보려 한다. 저잣거리와 주막엔 샷샷 쓴 무림의 고수가 많고 많은 줄도, 또 범이 무서운 줄도 알고 있으며, 또한 목숨 앞에서는 구차함을 마다치 않는 졸장부라, 미리 납작 엎드려 강호의 고수에게 너그러움을 청해 놓는다.

장자, 사람과 책

장주 (369?~286 BCE)	전국시대(戰國時代) (476, 혹은 403~221 BCE) 사람으로 맹자(372~289 BCE)와 같은 시대 사람이다.
장자	- 내편(7장), 외편(15장), 잡편(11장)으로 전체 33장, 6만 3천여 글자. 흔히 약 1만 3천여 글자의 내편 7장 만이 장주가 직접 쓴 것으로 여겨진다. - 내편은 1) 소요유, 2) 제물론, 3) 양생주, 4) 인간세, 5) 덕충부, 6) 대중사, 7) 응제왕이다
제물론	- 제물론의 뜻은 대략 다음과 같이 새겨진다. 1) 사물을 고르게 하는 데 대한 논의〔齊*物*論〕, 2) 이미 가지런한 사물들이 하는 이야기〔齊*物*論〕 3) 사물과 세상의 주장들을 고르게 하는 이야기〔齊*(物+論)〕, 4) 사물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고르게 하다〔齊*(物論)〕 - 제물론의 구성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에 따라서 6개의 큰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남곽자기와 안성자유, 2) 요와 순, 3) 설결과 왕예, 4) 구작자와 장오자, 5) 망량과 영, 6) 장주

지뢰(地籟), 장자가 들은 땅의 다양한 소리

장자의 제2장 제물론의 첫 부분인 안성자유와 남곽자기의 대화의 앞에 지뢰, 인뢰(人籟), 천뢰(天籟), 즉 땅, 사람, 하늘의 통소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가운데서 땅의 통소 소리, 지뢰에 대한 묘사는 놀라운 명문이라고 길게 말을 늘어놓은 곳이 많으나, 나에겐 그렇게 큰 느낌은 없으니 확실히 어더어 장임이 분명하다. 본문을 보자.

산림의 꼭대기와 백 아름의 큰 나무 구멍은, 코도 같고, 술잔 같고, 절구 같고, 연못 같고, 웅덩이 같기도 하다. 물 부딪는 소리, 시위 소리, 꾸짖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동굴의 소리, 새 울음소리, 앞에서 울면 뒤에 화답하여 온다. 산들바람은 가볍게 화답하고, 회오리바람은 크게 화답하다가, 사나운 바람이 자면 모든 구멍들은 고요하게 된다.¹⁾

장주는 그가 들은 땅의 형상과 땅에서 나는 소리, 노래, 음악을 길게 묘사한다. 소리는 땅의 숨결인 바람과 땅의 여러 형상이 함께 만들어내는 소리이다. 글숨씨는 모르겠지만, 산과 들, 그리고 소리를 찬찬히 관찰하는 장주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이 이야기의 끝에는 인뢰, 사람의 통소 소리는 아주 가볍게 말하며 지나가고, 하늘의 통소 소리, 천뢰에 대해서 질문하는 안성자유에게 남쪽자기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질 뿐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즉, 지뢰는 있지만, 인뢰와 천뢰의 이야기는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과 생각들을 듣고 읽으면서 문득 그리고 계속 판생각을 하는 나를 발견하는 건 놀랍고 재미있는 일이었다. 땅의

1) 기세춘 (2020). <장자>(1판). 서울: 바이박스.

온갖 다른 모습에 온갖 다른 바람이 들어가, 제각각의 소리를 내고 있다고? 그럼, 이진 소리의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각양각색, 형형색색, 가지각색, 천차만별의 소리와 모습, 이는 곧 다양성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다양성과 장자는 좀 뜬금없어 보이긴 하지만, 혹시, 장자의 핵심주제가 다양성이 아닐까? 그렇게 장자를 읽고 해석한 사람은 없나?

그런데, 지금 장주는 소리를 있는 대로 들으며 사정을 살피고 있는 건가? 좋고 싫음, 맞고 그름에 대한 선입견이나 판단 없이 말이다. 그의 태도는 과학적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어울리는데? 장주라는 사람은 철학자라기보다는 과학자에 더 가까운가? 과학적인 장주, 과학자 장주? 뭐지? 어쨌거나, 이진 매우 아름답기조차 한데...

아무거나 대중없이 질문을 던지며 재미있어하는 공학도, 영락없는 어다어장이었다. 제물론의 첫머리에 놓여 있는 지뢰에 대한 묘사는 소리의 다양성을 넘어 장주가 자연과 세상을 관찰하며 바라보며 깨달은 사실, 수많은 존재와 현상은 참으로 제각각으로 고유하고, 서로 다르다는 다양성의 진리를 표현한 건 혹시 아닐까? 더 나아가, 혹시, 그가 깨달은 건 다양한 존재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소리의 어울림이 곧 음악이란 평범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주(周)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던 혼란과 다

툼의 전국시대에 산 장자가 귀 기울여 들은 소리가 과연 들판과 산을 오가는 바람 소리, 땅과 나무의 온갖 구멍에서 나는 땅의 소리 만이었을까? 장자의 귀는 자연의 소리에서 인퇴, 사람들의 말과 글로 옮겨갔을 수 있을 게다. 그가 온 자신이 죽어 묻힌 듯이 힘을 빼고 앓아(吾喪我) 온 힘을 기울여, 자신의 선입견을 넘어 듣고 또 들었던 소리는 어쩌면 사람의 피리나 거문고의 소리도 아닌, 온갖 다양한 삶의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코, 술잔, 절구, 연못, 웅덩이 같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울부짖고 흐느끼고, 싸우고 노래하고, 울고 웃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노래, 인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길이 아니었을까?

들려오는 제각각의 인퇴 가락 앞에서 하늘의 노랫가락, 천뢰를 어떻게 하든 찾아내어 사람들과 함께 부르고 싶었던 이가 장주일지도 모른다. 지뢰는 인퇴와 천뢰로 향하는 시작점일 수도 있다. 자연의 다양성을 알아보는 이가, 사람의 다양성을 스쳐 지나가기는 쉽지 않을 게다.



인뢰, 사람 몸마음에 깃든 다양성

제물론은 지뢰의 이야기에서 천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의 생각, 지혜, 언어, 마음, 감정에 대한 묘사가 이어진다. 피리 소리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인뢰인 듯싶다.

큰 씨는 느긋하고, 작은 씨는 쯤스럽고, 큰 말은 담박하고, 잠잘 때는 꿈으로 뒤숭숭하고, 깨어 있을 때는 감각 기관이 일을 시작하고, 접촉하는 일마다 말썽을 일으키고, 마음은 날마다 싸움질에나 쓰고, 더러는 우물쭈물, 더러는 음흉, 더러는 좀생이, 작은 두려움에는 기죽어 하고, 큰 두려움에는 기절하고, 시비를 가릴 때는, 물매나 화살이 날아가듯 날썰다. 끝내 이기겠다는 것을 보면, 하늘에 두고 한 맹세 지키듯 끈덕지다. 날로 쇠하는 걸 보면, 가을 겨울에 풀과 나무가 말라가는 것과 같고 하는 일에 빠져들면 헤어날 길이 없다. 늙어서 욕심이 지나친 것 보면 근심에 눌러 꼭 막힌 것 같다. 죽음에 가까워진 그 마음은 다시 소생시킬 수가 없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염려와 후회, 변덕과 고집, 아침과 방자, 터놓음과 꾸밈, 이것들이 모두 빈 데서 나오는 노래요, 습한 데서 나오는 버섯이다. 우리 안에 밤낮으로 번갈아 나타나지만,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지 ... 우리의 몸에는 뼈마디가 백, 구멍이 아홉, 여섯 가지 내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특별히 더 좋아해야 하는 걸까?²⁾

어디어장은 또다시 다양성을 가지고 계속 엮어본다. 한번 꽃히면 다른 그림을 잘 보지 못하는 건 아마추어의 특징일 게다. 어라, 이도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장주도 지금 인간이 처해 있고,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 오가는 다양한 감정을 보고 있잖아? 제물론의 주제가 진짜로 다양성 아니야? 그래, 사람의 생각도, 감정도, 판단과 행동방법도 참으로 다양하고 말고지. 시공과 상황이 다른 것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각과 느낌, 판단과 반응이 저마다 다른 건, 참 신기하고말고. 그런데, 크고 작음, 음흉과 좀생이, 변덕과 고집 따위의 단어 속엔, 선입견, 판단의 시선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뭐지? 그렇다면 과학자 장주에 대한 그림은 너무 성급했나? 세상의 판단을 그냥 가져다 쓴 것인가? 사람에게 대한 언어는 본질적으로 시비와 기호, 가치판단을 피할 수 없는 건가? 아이구, 그런데 끝에서 어느 것을 특별히 더 좋아해야 하는 걸까, 는 혹시 기호와 선입견 자체에 대한 질문일까? ... 어디어장의

2) 오강남 (1999). <장자>(1판). 서울: 현암사.

생각은 갈팡질팡이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에 대한 장주의 결론은 간단해 보인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기에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고, 내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날 턱이 없지. 이야말로 진실에 가까운 것이나,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구나.³⁾ 어다어장은 따라서 다시 생각한다. 그래, 몸, 감정, 감정의 변화와 운동의 다양성은, 시비와 기호 이전에 삶의 단순한 사실인 게야.

3) 오강남 (1999). <장자>(1판). 서울: 현암사.

인뢰-인식, 시비 판단의 다양성

그런데 장주가 듣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인뢰가 있다. 제자백가, 백가쟁명의 세월이었다. 병마 소리와 함께 세상을 가득 채웠을 시비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오만 소리가 장주를 비껴갔을 리 없다. 장주는 말한다.

도(道)는 어디에 숨겨져 있다가 진실과 거짓을 드러내는가? 말은 어디에 가려져 있다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가? 도는 어디에 간들 존재하지 않는 일이 있는가? 말은 어디에서 쓰인들 안 되는 일이 있는가? 도는 조그만 성취에 숨겨지게 되며, 말은 화려함에 가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儒家)와 묵가(墨家)의 시비가 존재하게 되어, 상대방이 그르다고 하는 것은 이 편에서 옳다 하고, 상대방이 옳다고 하는 것은 이 편에서 그르다고 한다. 상대방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하고, 상대방이 옳다고 하는 것은 그르다고 하려면

곧 밝은 지혜로써 해야만 할 것이다.⁴⁾

글을 있는 대로 읽으면서 뜻을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도, 말,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 유가와 묵가> 따위의 단어들이 놓여 있는 풍경을 그려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어다어장의 마음과 머리는 또 분주해진다. 좀 종류가 다른 단어가 나오네. <도, 시비 판단, 가치판단, 유묵>은 다양한 개인을 넘어 사회적인 차원인데. 그럼, 문제가 좀 복잡지고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이데올로기화되고 권력과 결합하게 되면 다름에 대한 폭력으로 작동하기 쉬운 것 아닌가? 장주가 겪은 현실이 그랬나? 싸움의 시대 속에서 권력, 전쟁과 폭력에 매우 가까이 있는 시비 논쟁을 그냥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라며 대충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 아닐까? 땅의 소리, 사람과 세상의 소리를 들은 장주가 할 수 있는 건, 온 몸과 마음을 기울여 하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노래하는 일, 자신의 시공간을 넘어 미래 속으로 노래를 전할 수 있는 건 글을 쓰는 것이었을까? 그리고 장자의 제물론은 바로 그 노래의 한 곡조, 한 가락인 걸까? 그게 밝은 지혜라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 ...

4) 김학주 (2010). <장자>(1판). 서울: 연암서가.

천인천색, 만인만색의 사람세상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막상 같이 사는 일은 참으로 만만찮고, 나름 다 한가락 하는 사람이 내놓는 시비 판단 앞에서, 모두를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는 새로운 <썰>을 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장주 역시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의 말, 시비, 판단, 존재를 가지런하게 할 수는 없음을 물론 모르지 않았을 게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통소 소리를 남겨 놓았으니, 이제 그 노래를 들어보는 게 예의일 게다.



천뢰 1

조삼모사(朝三暮四), 인시(因是), 천균(天鈞) 그리고 양행(兩行)

제물론은 이제 글을 읽는 사람에게 뭔가 새로운 그림, 길을 던지시 보여주는 듯하다. 도는 제물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로, 어림잡으면 거의 매 문장마다 들어있다고 봐도 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든, 결국은 사람이 선택할 길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음이다. 장주가 들려주고 보여줄 길은 그가 지뢰와 인뢰를 들은 이후에 찾아낸 천뢰인지도 모른다. 아니, 장주의 노래, 장뢰(莊籟)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게다. 그럼 그의 이야기를 보자.

50

신명(神明)을 괴롭혀서 억지로 일(一)이 되려고만 하고 그것이 본래 같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조삼이라 한다. 무엇을 조삼이라 하는가. 저공(狙公)이 도토리를 원숭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성을 냈다. 그래서 다시, “그렇다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하였다고 한다. 하루에 일곱 개라는 명(名)과 실(實)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마음이

작용하였으니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또한 절대의 시(是)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성인은 시비를 조화해서 천군에서 편안히 쉰다. 이것을 일컬어 양행이라 한다.⁵⁾

조삼모사는 매우 익숙하다. 그리고 도가(道家)의 3인 가운데 하나인 열자(列子)의 책에도 나온단다. 흔히 변덕을 부리면서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태도나, 어리석어 전체를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과 같이 쓰인다. 그런데, 제물론 속에선 다른 분위기이다. 또한, 제물론의 매우 독특한 단어 3개가 한꺼번에 나온다. 천군, 양행과 더불어 위 본문에서 절대의 시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번역된 인시이다.

인시라는 단어는 제물론에서 남곽자기와 그의 제자 안성자유의 다른 대화 속에서도 나오는데, 번역하는 이에 따라서 하나의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풀어서 써는 경우도 있고, 장주의 매우 특별한 단어로 인정하며 의미를 주는 이도 있다고 한다. 인시는 대략,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 이익에서 출발하는 옳음이 아닌 다른 차원의 옳음, 즉 존재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

5) 전통문화 연구회 (2021). 동양고전종합 DB. <http://db.cyberseodang.or.kr/front/main/main.do>

들이며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어다어장은 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의 뜻을 대충 짐작하면서 뭔가 석연치 않아서 구글링을 한다. 그러니까(因) 그런 것(是)이다!!!⁶⁾ 우와, 대박! 완전 멋진 번역, 딱 마음에 드는데! 그래, 이미 여기에 있는 데, 있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왜 자신이 자신인지를 누구에게 설명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면, 그건 쯤이 아니라 많이 아니지. 그럼 그렇고말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를 ‘거시기 해서 거시기 혀’ 혹은 ‘카이까 그렇지’ 정도의 사투리로 번역해도 괜찮을 듯한데.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미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한 것이여. 거시기한 대로 봐주야 허~~. 이런 뜻의 인시는 곧 다양한 존재의 다양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공존과 발전을 모색하는 다양성 논의의 중요한 바탕, 혹은 모토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인시는 곧 있는 것을 일단, 있는 대로 인식하는 것, 즉 과학적인 태도에 가까운 듯하기도 한데. 그럼, 장자를 다시 과학자로 쳐주어야 하나, 어찌나? 아니, 이진 진리를 추구하는 이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인가?

그런데 천균은 또 뭐지? 글자만을 살피면, 하늘의 고루, 녹로, 물레라는 뜻인데, 하늘스러운 가지런함, 고름, 평평함이라고 하네? 평등, 하늘스러운 평

6) 김정탁 (2012). 그러하니까 그런 것이다 인시, 因是. *이달의 원광*. http://m-wonkwang.org/jsp/sub01/mwk_view.jsp?idx=1233&seq=40

등, 곧 자유가 되나? 그럼 천균은 존재의 평등성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렇게 되면 천균은 인시의 연장, 확장이 되나? 존재 대신에 사람을 대입하면 곧 사람의 평등성이 되는 건가? 다양한 존재의 평등성? 차별성과 평등성? 이진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온 고민이 아닌가? 아이구, 그런데 아무리 어다어장이라지만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닌가? 장주가 나를 보면 웃겠다.

다양한 만물만이 아니라 세상의 시비판단 앞에서 인시와 천균을 들고 있으면, 양행이 아니라 다행(多行)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이네. 그런데 무슨 뜻이지? 모두가 가는 큰 하나의 길이 아닌 제 각자에게 맞는 길, 삶의 방법? 그럼 다양성에 대한 포용, 수용이 되는 건가? 여러 길을 걸으라는 게 아니고, 제각각의 길을 가는 걸 놓아두라는 이야기겠지? 그럼 같이 걷는 길은 없나? 길이란 게 갈라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는 거겠지, 좁은 오솔길이 되기도 하고, 넓고 큰 길이 되기도 하고, 결국 천균, 양행은 다시 인시가 되네...

다양성, 그리고 인시, 인시, 인시라, 그러니까 그렇대! 문득, 그리스도교의 영성가들이 흔히 하는 말이 생각난다. “필요할 일엔 일치를, 그렇지 않은 일 일 땐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In necessariis unitas, in dubiis libertas, in omnibus caritas).” 어다어장은 제 흥에 겹고 장주도 추렴을 넣는다. “모든 물(物)은 진실로 그러한 바가 있으며 모든 물은 가(可)한 바가 있으니 어떤 물이든 그렇지 않는 바가 없으며 어떤 물이든 가하지 않는 바가 없다. ... 처음에

사물이 아직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으니 지극하고 극진하여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다. 그 다음은 사물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구별은 없다고 생각했으
며, 그 다음은 사물과 사물의 구별은 있지만, 아직 시(是)와 비(非)는 없다고 생
각했다고 한다.”⁷⁾

7) 전통문화연구회 (2021). 동양고전종합 DB. <http://db.cyberseodang.or.kr/front/main/main.do>



천뢰 2

천예(天倪)와 만연(曼衍)

조삼모사의 이야기 속엔, 조삼모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시공간의 영역을 넓게 바라볼 수 없는, 인식의 본질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있어 보인다. 장주는 세상의 시비 논쟁과 판단 앞에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이 아닌, 모든 논의, 인식이 가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 시공간의 한계를 일깨우는 전략을 선택한 듯하다. 누구도 제 홀로 온전하지 않고,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도 못한다. 첫 이야기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다. 이제 급히 장주의 다른 이야기로 갈 때다. 책장을 슬쩍슬쩍 넘기며 구작자(까치)와 장오자(오동나무)가 나와 세상 밖의 사람들, 삶과 죽음, 꿈과 생시, 시비 논쟁 따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들어 있는 멋진 두 개의 단어 천예(天倪)와 만연(曼衍)이 있는 곳으로 간다.

이처럼 변하기 쉬운 [시비 대립의] 소리에 기대하는 것은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과 같네. 이런 것을 ‘하늘의 고름, 천예(天倪)’로 조화시키고, ‘무한의 변화

(曼衍)’에 내맡기는 것이 천수(天壽)를 다하는 길이지. ‘하늘의 고름’으로 조화시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사람들은 보통 ‘옳다, 옳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하네. 그러나 옳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옳다면,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과 다르다는 것은 변론할 여지가 없는 일이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다면, 그런 것이 그렇지 않은 것과 다르다는 것 또한 논쟁할 여지가 없는 일 아닌가. 헛수가 더해 세월 가는 것을 잊고, [옳다 그르다] 의미를 따지는 일을 잊어버리게. 구경(究竟)의 경지로 나아가 거기에 머물도록 하게.⁸⁾

천예라는 말은 글자대로 보자면, 하늘이 알맞게 나눈 상태, 하늘스러운 알맞음 자연스러운 어울림, 자연스러운 알맞음, 있는 대로의 알맞음 따위로 번역될 수 있을 듯 하다. 그리고 만연은 전염병이 만연하다, 따위로 흔히 쓰이는 단어인데, 식물의 줄기 따위가 넓게 퍼져 나간 모습을 뜻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재미있는 해석이 있다.⁹⁾ 천예는 “각 개별자의 서로 다름을 대상화하지 않고 무지개 같은 조화로운 다양성[천예(天倪)]”으로 그리고 만연

8) 오강남 (1999). <장자>(1판). 서울: 현암사.

9) 장희숙 (2018). 삶의 지(智: aretē)-장자의 생명 윤리. <생명, 윤리와 정책> (국가생명윤리 정책연구원), 2(1), 121-141.

은 “시비를 가리지 않으면서 시비를 인정[화(和): 화시비(和是非)]하며,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운동[만연(曼衍)]”이며 따라서, “개별자들이 서로 다른 것은 그 자체로 자연이므로, 다른 것 자체를 그대로 두고 각자의 옳은 것에 맡기는 것이 가장 실상에 가깝고 현실적 대안”이다.

어디어장의 눈에 이 해석이 눈에 딱 들어와 박히고 제멋대로 혼자 생각이 마구 일어난다. 오호, 이것도? 대박! 천예, 무지개, 다양성!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한 비유가 무지개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짜 맞춘 듯하지? 그런 데 대체, 어떻게 알맞음(倪)이 무지개(霓)가 되었지? 서로 다른 색깔이 나란히 서서 하늘의 길처럼 서 있는 무지개? 무지개가 하늘의 길로, 그리고 길이 곧 올바른과 알맞음의 이미지로 번져 나갔나? 아님 그냥, 비유인가? 무지개를 아름답다고 받아들이다면, 사람의 다름도 아름다움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만연하다는 말은 완전히 새롭네? 식물의 줄기가 퍼져 나가는 모습, 시비를 가리지 않고 운동하는 모습이라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네? 그런데, 넉쿨처럼 번지는 일이 곧 운동? 좀 아닌 듯한데. 어쨌거나, 어릴 적 산에서 보던 칙넉쿨의 모습이 곧 만연인가? 그때의 나에겐 매우 풍성하고 보기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럼, 만수산 드렁칫처럼 이렇게 저렇게 엷혀 차고 넘치게 있는 모습이 아름답고 풍성한 건가? 일편단심이 한결 같은 붉은 마음이 아니라, 시

비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한 색깔의 한 조각의 통 좁은 마음일 수도 있나?...

천예가 하늘스러운 길, 여러 색깔의 무지개와 같은 길을, 그리고 만연이 하늘 아래 놓인 땅에서 식물의 줄기가 번져 나가는 풍성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천예만연은 서로 다른 여럿이 엮여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생태적인 시선에 참 어울리는 알맞은 단어이다. 서로 다른 여러 존재가 관계 속에서 의지하며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떠올려본다. 투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에선, 충돌과 투쟁만큼이나 공생과 의존 또한 생태계의 본질임을, 기호와 시비를 넘어서 형형색색이 함께 하는 하늘 무지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 또 하나의 길, 아름다움이 되면 좋겠다. 혹시 장주도, 식물 넉쿨이 땅 위의 경계와 상관없이 마구 번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내린 형형색색의 사람이 제 스스로 만든 분리와 차별을 넘어서며 풍성해지는 그림을 그려봤던 걸까? 천예만연이라는 단어 앞에서, 생명이 사람의 시비를 넘어가는 모습을 그려보는 장주를 상상하는 건 너무 지나친가?



장로(莊賴)

장주의 노래, 호랑나비 꿈, 물화(物化)

이젠 장자의 이야기, 제물론의 마지막으로 가자. 매우 짧지만 너무나 널리 알려진 장주가 꾸 호랑나비 꿈 이야기다. 제물론의 시작에서부터 나를 심각하고 긴 이야기를 만만치 않은 호흡으로 끌고 왔는데, 끝에 놓여 있는 이야기가 좀 난데없다. 갑자기 목소리와 얼굴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나 툭 던지는 느낌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뭘 어찌자는 이야기인지? 일단, 본문을 한번 보자.

간밤에 장주는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영혼이 훨훨 날아오르는 듯. 그는 한 마리 나비였고 (그는 자신이 어떤지를 보여주면서 스스로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아닐까?), 장주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화들짝 깨어나 보니 틀림없는 장주였다. 그는 자신이 나비가 된 꿈을 꾸고 있는 장주인지, 장주가 된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인지 알 수 없었다.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물론 구분이 있

었다. 이것이 바로 ‘사물들의 변화(物化)’가 뜻하는 것이다.¹⁰⁾

나비 꿈 이야기에 들어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 흔히 물화를 이야기하며 동화, 주객일체, 여물동화(與物同化), 만물제동, 물아일체, 천지자연과 하나, 생사일여(生死一如), 생사불이(生死不二), 초연, 자유, 평등 따위의 단어를 이야기한다. 모두 멋져 보이는, 그러나 다 알 듯 말 듯 하고, 뭔가 좀 단단하지 않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마음이 인다. 그런데, 물화가 무엇이건, 나비와 꿈이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건, 장주는 꿈을 꾸었고, 또 꿈에서 깬다. 그런데 꿈에서 깬 장주는 매우 재미난 말을 남긴다.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어다어장은 제물론의 마지막 막, 장자의 혼자 말 앞에서 또 한 번 뺨쳐본다. 다양성이라는 주제로도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다름, 구분이 편 먹기와 다름으로 가고 있는 현실, 전체가 아닌 부분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삶에 대한 자각, 그리고 지금과 다른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일을 어떻게 엿어볼 수 있을까? 장주의 꿈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구분, 꿈, 알 수 없음이라는

10) Graham, A.C. (2014). <장자>(김경희 역)(1판). 서울: 이학사.

단어를 가지고 다양성과 어떻게 엮어보면 안 될까?

구분이란 건, 비슷함과 다름, 곧 다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비슷함 안에서 편안함과 친밀함을 즐길 수도 있지만, 다름 속에서 설렘과 새로움을 즐길 수도 있다. 사실, 비슷함과 다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곧 다양성 논의의 핵심이지 않은가?

또한, 수 없음, 무지 혹은 부지에 대한 자각은 다름 앞에서 쉽게 단정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에 이르는 걸 유보하고, 새로운 인식과 관계의 가능성을 탐구해보는 일로 엮으면 되지 않을까?

회피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도전의 길을 뜻할 수도 있는 꿈을, 제 안팎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영역과 경계를 넘나드는 하나의 길에 대한 모색으로 보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물화는 곧 저 자신의 경계를 넘어 다름으로 나아가기, 포용하기, 꿈꾸며 넘나드는 운동으로 읽을 수 있을 듯도 한데. 오, 뭔가 그림이 되는 듯한데. 억지, 건강부회라고? 좀 그런가?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주고, 그냥 자유로운 상상이라고 해두지 뭐. 정답이 어디 있냐고 되물어주지 뭐. 이런저런 색깔과 향기를 입혀서 읽는 건 내 자유고, 나에게 새로운 이야기가 되면 그만이라고 우겨보지 뭐. ...

제물론의 마지막에서 알 수 없다는 말을 슬쩍 흘려 놓으며, 사람의 무지, 부지, 온전할 수 없음을 다시 이야기하며, 선부른 판단에서 오는 폭력을 피하

고, 제각각의 색깔과 향기를 지닌 사람이 함께 제 삶을 살아가는 길에 대한 새로운 꿈 꾸기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장주를 그려보는 일은 유쾌하다. 꿈에서든 현실에서든, 비스듬함의 편안을 넘어 불편한 다름 속으로 설렘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 구분과 경계에 새로운 문과 길을 내는 이는 참 아름답다 보인다. 자신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 다른 이의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호랑나비를 꿈꾼다면, 또 끊임없이 깨어나, 또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면, 꿈이 지금 여기를 넘어 새로운 현실이 싹트는 생명의 자리가 된다면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쩌면 제물론의 첫머리에서 죽어서 묻힌 듯한 분위기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던 장주는 사실 호랑나비 꿈을 꾸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어다어장은 다시 생각해본다. 땅 위의 온갖 소리, 사람에게 오가는 수많은 감정,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엇갈리는 시비 판단, 이것과 저것의 구별, 차이가 만들어내는 다름을 넘어 어떻게든 잘 살아 보는 일에 대한 장주의 제안으로 제물론을 읽어보는 것은 꽤 괜찮은 일이라고. 그리고 무지, 온전할 수 없음에 대한 자각, 제각각인 존재에 대한 인식과 수용을 바탕으로 구분과 구별을 넘나들며 사귀기와 꿈꾸기에 도전하는 일은 더 괜찮은 일이라고. 장주를 친구 삼아, 이 세상이라는 광막지야(廣漠之野)에서 실실 거닐기도 하고, 또 나무 아래 누워 나비 꿈도 꾸고, 또 깨어나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며 한

번 웃을 수 있으면 그 또한 괜찮다고. 꿈이 아닌 뜬 눈앞에서 나비가 날고, 봉
(鵬)이 날아오르는 일을 볼지 누가 알겠는가? 젊은 시절, 친구가 자주 부르던
존 레논(John Lennon)의 노래 구절을 장주의 입에 슬며시 엮어놓고, 나는 숨
는다.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이대현

언론학 박사. 한국일보 기자, 문화부장, 논설위원을 거쳤으며 영화진흥위원(비상임),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이사,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을 역임했다. <유아 낫 언론> <소설 속 영화, 영화 속 소설> <열일곱, 영화로 세상을 보다> <영화로 소통하기, 영화처럼 글쓰기>(공저)와 <한국신문 영화보도담론의 정파성에 관한 연구>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김지형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학부에서 학생들과 함께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있다. 좋은 친구 덕에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에서 또 좋은 분들을 만났다. 그 고마운 인연 덕에, 듣고 보는 이야기와 풍경 속에서 문득문득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한다.

Diversitas List

1호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_ 이정모
고정관념은 정확할수록 문제다 _ 허태균

2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젠더 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 _ 김홍탁
인공지능의 윤리학: 차별적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알고리즘을 꿈꾸며 _ 신혜린

3호

다양성, 차이 그리고 차별 _ 박경태
효율적 삶의 피안(彼岸) _ 배종훈

4호

다양하지 않음에 질문을 던지다 _ 윤석원
인구 변동과 다양성 _ 최승기

5호

과학기술은 왜 더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가 _ 임소연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습 장면 만들기 _ 이보라

6호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기업 사례들로 살펴보는
다양성의 6하 원칙 _ 박은연
기형, 추함, 버림받음-프랑켄슈타인의 괴물 _ 노애경

7호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원판은
불변법칙인가, 가변법칙인가? _ 서명원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_ 전대원

8호

타이포그래피와 다양성 _ 유지원
한국어에 숨은 가장 일상적인 차별 _ 신지영

9호

다양성의 물리학 _ 김병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 _ 김희강

10호

다양성의 가치로 풀아낸 가능성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 _ 노정혜
극장은 다양성의 산물
세계 극장사에서 발견한 다양성의 가치 _ 박동우

11호

한국 스포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_ 정윤수
성소수자의 권리 TV가 재현하는 성소수자 _ 박지훈

12호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세상을 꿈꾸며 _ 민지영
왜 탄탄대로에는 다양성이 없을까? _ 양희연



Diversitas

권호 13호
발행일 2021년 6월 15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diversity.korea.ac.kr
디자인·편집 사이시옷

※ 이 저술은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되었음

